

을 바람직하게 성취시키는 과업에 헌신할 신념과 용기로 온갖 정성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누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제 요소들이 너무나 결핍하기 때문에 有意未成이 아니냐고 하기에 앞서 有意者 事竟成이란 옛 말도 있듯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해 내고야 만다는 인간의지가 이기고 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의 인격은 창조성 생산력에서 그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無에서 주저 앉아 한탄만 하는 데에서는 인격의 가치가 성립되지 않으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데서 비로소 인간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은 더욱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서로 자극하고 독려하여 앞을 향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참다운 단합이 인간미가 넘치는 가운데서 이루어 진다고 하겠다. 우리는 최대

한의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굽히지 않는 정신과 목적달성을 위한 불퇴전의 전진에 기대를 건다.

극단적 이기일변도는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멸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모든 어항인의 마음속에 가치창조의 희열과 사랑의 감격을 개발하고 목적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초조를 극복하도록 해야 하겠다. 자기 이익보다는 전 수산인의 이윤추구에 성실하여 소성에 만족하지 말고 대성을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진취성과 중지를 모은 합리성으로 어항계는 물론 전 수산계의 번영에 총매진하여 빛나는 어항사를 창건하는 축복의 기록으로 항구히 남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빛나는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 ▲

공기단축 완벽시공 위해 어항공사 조기발주도 해결

黃 今 秋 <東光建設(株) 社長>

개정된 어항법에 따라 한국어항협회가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시공회원사로서, 또한 어항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항발전을 위한 많은 역할에 기대하는 바 매우 크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항공사는 일반공사와는 달리 바다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란 필설로 다 할 수 없다.

게다가 도로공사나 건물공사처럼 공사의 진척상황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공사도 아

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많은 어항인들이 이를 참고 견디며 묵묵히 어항공사를 수행해 온 것은 아마도 미래의 수산대국을 향한 강렬한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런 어항인의 고충을 대변해 주고, 나아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어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단체가 한국어항협회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어항협회의 법정법인 출범은 많은 어항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도 남는다.

일본어항협회를 보면 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시공회사·어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솔직히 많은 부러움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이에 필적할만한 어항협회를 새롭게 탄생시키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 나라 어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한국어항협회의 법정법인 출범에 발맞춰 가장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어항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어항공사의 조기발주 문제의 해결이다.

원래 어항공사란 한 점, 한 획도 틀림없는 완벽공사가 되어야 함은 하나의 상식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간혹 공사발주가 늦어져 태풍철과 겹치게 됨으로써 공기에 쫓기고 기상에 위협받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

따라서 어항협회는 앞으로 이런 부실의 위험이 있는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할 수만 있다면 계속 공사만이라도 연중 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공기단축은 물론 완벽 시공이 이루어지게끔 적극 힘써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항공사 때마다 빈번히 야기되는 민원문제도 이제는 협회가 발전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많은 어항인들은 바라고 있다.

그래서 어항인은 오로지 어항공사에만 전심 전력함으로써 말 그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어항건설을 해보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소망이자 바람이다.

이밖에 어항공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문제점 역시 협회가 면밀히 검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한국어항협회의 법정법인 출범을 다시 한번 전어항인과 함께 축하해마지 않는다.